□성명서□

상생과 합의정신을 저버린 유업체의 갑질을 규탄한다!

- 유업체는 원유가격 연동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협상에 임하라! -

원유가격 연동제는 과거 원유가격 협상 당시 단식농성, 납유거부 등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낙농가, 유업체가 2011년도에 합의하여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당시 국회, 언론에서도 도입요구가 있었던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가와 유업체 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도 합의한 성숙된 사회적 결과물이자 제도이다.

그러나 2020년도 유대 협상에서 유업체가 원칙을 무시하고 동결 내지 40원 인하까지 요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업체는 수년간 백색시유 적자를 주장하며 원유가격 인하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젖소도 웃을 일이다. 유업체는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구매하여 백색시유 뿐만 아니라 가공유, 발효유, 가공유제품 등을 생산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FTA로 인해 값싼 유제품원료까지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소비둔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에도 혼합분유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낙농가로선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유업체가 적반하장으로 협상범위에서 벗어나 인하요구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경남 낙농가들은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낙농가들은 고액투자, 하루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력 투입으로 인해 힘겹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환율에 의한 사료값 인상, 무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도입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 장비 투자 등으로 정부가 주도한 생산자 물가 폭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도 생업을 접는 낙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농가보고 감내하라고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때문에 원유가격 조정은 낙농가가 우유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생산비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규정과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 경남 낙농가들은 유업체의 갑질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에도 낙농가를 볼모로 협상을 진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협회중앙회 방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경남도 자체적으로도 실력행사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원유가격 연동제를 깨기 위한 어떠한 유업체의 책동도 결단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유업체는 성실히 원유가격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0. 7. 2

한국낙농육우협회 경남도지회(지회장 김구영) 소속 낙농가 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12번길 29 창원축협 사료판매장 3층 / 전화 055-299-3396